

# “다중집회 강행 주최·참석자 사법처리”

당정청, 코로나19 대응 긴급 협의회

경찰·지자체 협조해 집회 참가자 귀가 유도  
귀가 유도에도 공무집행 방해시 현행법 제포  
코로나19 종합패키지 대책 이번주 내 발표  
마스크 수출 일일 생산량의 10%로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의무 공급으로 돌려 공급을 통해 공급하고 수출물량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되, 국회 폐쇄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되는 다중집회 대책과 관련해서도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한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우선 코로나 확산으로 지속되는 마스크 수급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마스크 유통과 관련, 공적 의무 공급량을 일일 생산량의 50%로 지정

해 생산량의 절반은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시와 경북 청도에 대해선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한 무상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대구·경북(TK) 및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과 수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적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 건물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 종합패키지 대책도 이번주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정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열리고 있는 다중집회와 관련해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법으로 제포하는 등 엄정히 대응

해 나가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집회 금지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은 촛불의 방역활동과 함께 엄중한 다중집회 관리를 통해 코로나의 빠른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시스

코로나19에도 민주 총선 경선 착착... 'ARS 덕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폐쇄되는 등 여의도 정가에 일대 파란이 일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현재 4·15총선 후보 경선 일정을 별다른 차질없이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는 후보 경선을 ARS(자동응답) 여론조사로 진행하기 때문으로, 후보들도 대면 선거운동 전면 중단이라는 당 기조 하에 SNS 등 비대면 선거운동을 통해 경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서울 6곳, 부산 3곳, 대구 2곳, 대전 1곳, 울산 2곳, 경기 7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2곳, 경남 3곳, 제주 1곳 등 총 30개 지역에 대한 1차 경선에 들어갔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총 14개 지역, 27일부터 29일까지는 13개 지역, 내달 1일부터 3일까지는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경선에 들어갈 예정으로, 코로나19에도 경선은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선은 자동응답(ARS) 여론조사로 진행되며, 관리당원 투표 50%, 일반시민 투표 50%가 반영된다.

관리당원일 경우 02로 시작되는 번호를 받아 본인인증을 거쳐 지지 후보를 선택한다. 일반 시민 투표의 경우 본인 거주지를 우선으로 확인한 뒤 민주당 지지자 응답자에 한해 지지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뉴시스

##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 김금옥, '국가방역 시스템 강화' 첫 공약으로

4·15 총선에서 전북 전주갑 선거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금옥 예비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국가방역 시스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베르스, 사스 사태를 거치며 정부는 한층 더 체계적인 국가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해왔지만 앞으로 지구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슈퍼 바이러스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방역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염병에 취약한 계층 지원과 마스크 등 질병예방물품을 대접매석하는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구체적 공약으로 ▲질병관리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및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 ▲정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및 방역/역학조사/의료진 인력 확충 ▲마스크, 손소독제 등 질병예방물품 제조·유통 및 방역대행 공공기관 설립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질병취약계층 감염예방 물품 무상 지원 등을 내놨다. /특별취재반

### 고종윤 “민주 공천심사 결과 수용할 것”

더불어민주당 고종윤 예비후보(정읍·고창)가 공천심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종윤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공천심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비록 저와 정읍·고창 시·군민 여러분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임을 잘 알고 있기에 아쉬운 마음을 여기서 거두려한다”며 경선 결과를 수용했다.

또 “저는 두 달 전 청년정치 시작을 알리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다”며 “새시대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 청년이자, 여러분들의 대변인이 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아직은 시·군민들의 바램을 담기에는 작은 그릇이었으나 보다”며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을 느낀 만큼, 여러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조형철, 전주를 지역구에 '출사표'

조형철 민주당평화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이 4·15 국회의원 선거 전주를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예비후보는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을 통해 “전북 뒷밭에 기생하며 생존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이를 통한 평생 소원인 전북발전을 이루하겠다”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전북뭉치를 쫓길 수 있는 대안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황소의 리더십을 통해 전북발전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전주 국가문화관광거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전주와 경상지역을 연결하는 KTX를 건설, 이를 통해 영남 지역의 전북 관광을 편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주 지역화해 발행과 공공배달업 보급을 통해 전주 지역 자영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켜낼 것과 아파트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전주지역 아파트를 ‘녹색아파트, 친환경아파트, 공유아파트’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예비후보는 “반세기 동안 전북발전을 이루겠다는 소신으로 정치발전에 매진해 왔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세력을 심판하고 전주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전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전주시의원, 전북도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별취재반

### 박희승 “지역 도로망 확충 적극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25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에 적극 나서, 빠르고 편한 남원·임실·순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도로망 확충을 위해 전북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새만금~변산반도~내장산~강천산~지리산 내륙관광도로를 개량, 직선화하는 등 전북의 동(지리산)서부(변산반도, 내장산) 국립공원 및 군립공원(강천산)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지닌 남원·임실·순창의 도로망 개선과 확충은 지역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관광객과 방문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능력 있는 일꾼 박희승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주민관광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팜플렛 / 리플렛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